

Dave Mathewson 박사, 계시록, 강의 1, 소개 및 배경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록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e Mathewson입니다. 세션 1, 소개 및 배경입니다.

다음 몇 세션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독교 역사상 성경의 마지막 책만큼 오해되거나 무시되고 무시된 책은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의 역사를 연구할 때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약성경의 정경에 들어가는 데 약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접근할 때 그것을 올바른 관점으로 놓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의 오랜 전통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잘못된 시작과 오해, 피해야 할 실수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 이해하고 교회의 통찰력 중 일부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역사를 연구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특징지어져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단순히 집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일부 기독교인, 일부 교회, 그리고 현대까지의 교회 역사 기간은 요한계시록을 다소 건강하지 못한 집착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책이고 계시록에 이르는 다른 모든 책은 무시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 웹사이트를 위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일에 전 사역을 바친 유명 인사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Google Revelation 또는 Apocalypse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시록이 실제로 우리 시대의 사건을 예측하는 방법과 그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미 성취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 뒤에 있는 가정 중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세기를 제외하고는 매 세기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고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갑자기 우리는 성서의 신비와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됩니다. 시현.

이에 대한 가장 최근의 광범위한 문학적 시연 중 하나는 잘 알려진 Left Behind 시리즈였습니다. 이 시리즈는 허구이고 허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작가가 문자 그대로 생각한 내용이나 작가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허구 형식으로 묘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약과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다른 예언적 본문이 성취될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는 일은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와 비전을 그들이 생각하는 21세기 현대에 반영된 사건과 연관시키고, 그러한 사건이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연관되고 일치하는지 허구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John은 실제로 21세기에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고 있었고 이를 기록했다고 가정합니다.

한 작가가 말했듯이, 존은 마치 시간여행자로서 21세기로 여행하여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는 1세기 작가들에게로 돌아가 아마도 그들이 결코 추측하지도 못했고 결코 이해할 수도 없었던 어떤 형식으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지금 20세기, 21세기 기술, 정치 시대 및 환경에서 우리는 갑자기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열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 역사의 여러 시기를 특징짓는 하나의 접근 방식입니다. 책에 대한 집착, 요한계시록에 대한 열광, 이는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이 4세기나 15세기에 전개되고 있는 사건들을 실제로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20세기 아니면 지금 21세기.

이에 대한 반대 접근 방식은 책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소 환상적인 이미지와 이상한 이미지와 상징을 읽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그것을 무시하고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더 친숙한 이야기 등의 안전한 근거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 요한계시록 9장을 펼치면 떼를 지어 날아가는 메뚜기에 대한 이상한 설명을 읽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 그들은 지금까지 만나서 소리를 낸 다른 메뚜기와 같지 않습니다. 공상 과학 공포 영화나 그와 비슷한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자는 9장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무저갱을 여니 그 속에서 연기가 나오니 큰 풀무에서 나오는 연기 같더라. 해와 하늘이 무저갱의 연기로 어두워지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에 내려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땅의 풀이나 풀이나 나무는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셨다. 그들을 죽이는 권세는 허락지 아니하고 다만 다섯 달 반 동안 괴롭게만 하였느니라. 그리고 저자가 메뚜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 몇 구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메뚜기들은 전투를 위해 준비된 말처럼 보입니다. 이제 연기 속에서 이 심연에서 나오는 메뚜기들을 볼 수 있지만, 저자는 이것이 실제로 전투를 위해 준비된 말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철 흉갑 같은 흉갑을 가졌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과 병거의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전갈처럼 쏘는 꼬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거기서 멈출 것이다. 나중에 해당 텍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동물과 같은 특징과 곤충과 같은 특징, 그리고 인간과 같은 특징과 동물의 특징이 결합된 다소 이상한 조합을 주목하세요. 이 모든 것이 SF 공포 영화나 그와 유사한 것에 더 적합한 거의 기괴한 이미지로 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나면 대개 책에 대해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집착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미루어져서 요한계시록을 무시하고 더 안전한 바울서신이나 복음서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록은 여전히 일곱 인이 찍힌 책입니다. 계시록이 봉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록은 여전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잘 알려진 것처럼, 뛰어난 사상가인 존 칼빈은 신약성경의 모든 책에 대해 주석을 썼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계시록의 일부 작가들은 그의 인도를 더 잘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껏해야 책을 무시하고 학자나 이 다소 이상한 책을 이해하는 데 더 적합한 사람들의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사를 공부할 때 우리는 책에 집착하여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전체 사역을 책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에 비추어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것은 너무 이상하고 이상합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며 이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것이 더 쉽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요한계시록은 대개 의심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일부 폭력적인 이미지로 인해 계시록은 종종 교회 외부의 사람들에게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심지어 계시록이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사상가인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계시록은 기록된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맹렬한 보복의 폭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는 계시록이 마약 중독자의 환상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극도의 의심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종종 사회의 모든 종류의 악과 불행, 질병 등의 근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교회 밖에서도 우리 영화의 많은 원천이자 영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영화의 제목은 묵시록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제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 밖에서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우리 교회 안팎에서 취급되는 양면성을 고려할 때, 요한계시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백성을 향한 계시의 일부로서 성경의 정경에 속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멈춰서 그 책에 방향을 돌려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강좌에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움과 의심을 어느 정도 없애고, 요한계시록을 취급하는 강박관념과 무책임한 방식도 피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 자체는 베일을 벗기다, 폭로하다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apokalipsis)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그 메시지를 숨기지 않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숨기려는 의도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맨 처음에 계시록은 드러내거나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계시록은 사실상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과 교회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모호하게 하고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열쇠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그 의미를 어떻게 밝히고 드러내는지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영국 학자 리처드 바우콤(Richard Baucom)이 말했듯이, 교회사의 계시록 이해 문제와 많은 오해의 일부는 계시록이 실제로 어떤 책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그리고 애초에 왜 쓰여졌나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책 자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소개 섹션에서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 질문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왜 기록되었는가? 요한계시록이 출판되고 기록되는 과정을 둘러싼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요한은 애초에 왜 이러한 환상을 보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는 데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책은 어떤 책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 책이 속하는 문학 장르, 문학 유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 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다소 이상하고 다소 독특한 이 책을 생산하고 영감을 주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하려고 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우선 이 책이 왜 쓰여졌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은 책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읽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과 구약성서를 읽을 때, 그 책들을 읽을 때 우선 그 책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그 책들을 읽도록 배운다는 것입니다. 응답이었습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위기나 문제, 상황에 비추어 읽도록 배우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도록 노력하는 유대교도들이라고 불리는 그룹에게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우리 삶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읽습니다. 또는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야로 돌아가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이사야가 처음에 이 책을 쓰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나라가 포로로 끌려갈 준비가 되어 있던 상황, 곧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을 더 잘 이해하고 저자가 애초에 이 책을 쓴 이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렇게 된 몇 가지 상황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해석학적 원리 중 하나는 성경의 원래 역사적 맥락과 저자가 누구인지, 그의 상황은 어땠는지, 애초에 왜 이 책을 썼는지, 그의 독자는 누구였으며, 문제는 무엇이었고 저자가 다루려고 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즉, 신약성서의 문서들은 진공 상태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위기와 상황에 대한 일종의 목회적 대응으로 기록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약간의 시간을 소비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왜 이 원칙을 무시합니까? 그리고 다시, 우리는 책을 무시하거나 다른 접근 방식은 현대의 평행선으로 바로 점프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직후인 서기 2세기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의 사건과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유하여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치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21세기 정치 환경과 기술 및 역사적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로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둘 사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연결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다른 책들처럼 다루어야 한다는 점, 즉 계시록을 그 자체의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를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우선 1세기의 독자 집단에게 쓰여진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련의 문제와 위기에 직면했던 1세기 교회 그룹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존이 이 책을 쓰게 만든 1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조금 풀어보려고 약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생각에는 요한은 단지 앉아서 허공의 진공 상태에서 이 비전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화와 문화 속에 살고 있던 1세기 교회 그룹의 다소 구체적인 일련의 문제와 문제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권위와 통제권을 휘두르던 환경과 제국. 이제 이것의 출발점은 요한계시록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실제로 다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꽤 많이 말해 줍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책을 실제로 작업하기 시작할 때 해당 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소서아시아, 즉 현대 터키에 존재했던 역사적 일곱 교회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실제로 역사적 교회로 알려져 있었고 일련의 이슈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교회가 있고, 서머나라는 도시에 교회가 있고, 버가모라는 도시에 하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하나, 그리고 다른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요한계시록이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그들이 처한 환경과 맥락에서 일련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던 실제 일곱 교회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요 문제는 이 교회들, 이 일곱 교회 모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더 많은 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바로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제국은 당시 정치, 종교, 경제, 군사의 강국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알렉산더로부터 그리스 제국의 통치와 페르시아 제국 등을 거쳐 바빌로니아 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등 여러 다른 중요한 제국들을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제국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오늘날의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경제적 강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 교회는 로마 통치의 중심에 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은 그 당시까지 알려진 제국이나 왕국을 넘어 국경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퍼져나가면서 통치를 나누는 방법, 온 땅에 대한 헤게모니가 커지는 방법, 이 크고 널리 퍼진 왕국에 대한 통치를 유지하는 방법은 그것을 일종의 국가와 같은 속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가 거대하고 성장하는 제국을 계속 통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모두 로마 통치와 로마 제국의 중심에 있는 지방 중 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제 1세기에 이 일곱 교회와 그와 유사한 많은 교회들이 무엇에 맞서 싸웠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로마에 대해 아주 아주 빠르게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로마는 적어도 세계의 관점에서 그리고 로마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는 제국 전체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즉, 패권이 커지고, 국토 전체로 퍼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다, 로마에는 자체적인 비판자들이 있었고 로마의 통치 확산과 그것이 행해지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히 로마 자체는 로마 자체를 전 세계의 은인으로 묘사했습니다. 로마는 제국 전체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모든 사람은 그 축복을 경험했고 따라서 실제로 로마에 감사의 빛을 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시민들, 즉 그 통치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누렸던 모든 축복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의 힘은 자신의 통치를 확산시키고 반항적이고 해로운 나라와 민족을 정복함으로써 로마가 기반을 두고 있는 소위 신화 중 하나가 아마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문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로마의.

로마는 평화를 가져온 것으로 유명했으며 그 중 일부는 군사력을 통해 반란을 진압하고 상황을 통제하며 제국 전체에 평화가 군림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경제적 번영을 담당했습니다. 로마는 황금시대 또는 황금시대를 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로마는 또한 온 땅에 정의와 공의를 가져오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 뒤에는, 이 모든 것 뒤에는 로마가 땅을 통치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 신들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는 자신과 그 통치자인 황제를 기본적으로 세계의 구세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황제 자신도 신들의 뜻의 대리인으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제우스와 같은 모든 신들, 일부 유명한 그리스와 로마 신들, 황제는 기본적으로 신들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곧 그 자신, 즉 황제 자신도 곧 실제로 신처럼 대접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황제가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황제는 신으로 대우받을 수 있었고 헌신과 충성, 숭배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주(Lord)와 하느님(God)이라는 칭호조차 일부 황제들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행된 방식, 로마와 그 뒤에 있는 신들, 심지어 황제 자신의 신성한 지위에 대한 인식이 시행된 방식은 황제 숭배로 알려진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즉, 황제 숭배는 단순히 로마와 그 황제에 대한 숭배와 충성을 장려하는 방식의 체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 도시나 로마제국 소아시아 지방의 로마 도시를 지나다 보면 외국의 신들뿐만 아니라 황제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신전들도 볼 수 있다. 그 자신.

당신은 황제의 이미지, 이미지와 동상, 심지어 일부 벽의 비문, 그리고 로마의 신성한 지위와 심지어 황제와 황제가 당신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을 시각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알림은 충성을 보여주고 심지어 황제에 대한 숭배를 장려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로마서 2장과 3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에서 언급한 이 마을들 중 많은 마을들에도 성전지기로 알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의 기능을 유지하고 심지어 집행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와 로마 황제가 여러분에게 베푼 모든 축복에 대해 여러분이 빚진 감사의 빚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기리기 위해 열리는 온갖 종류의 축제까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도시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초기에 황제 자신이었으며 로마는 일련의 황제에 의해 통치되었지만 초기에 일부 황제는 실제로 이 두 도시에 사원을 짓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다른 일부 도시에서는 황제를 기리기 위해 황제의 이름으로 사원을 짓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도시 전체나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에는 황제 숭배가 활발했고, 그 중 많은 곳이 황제를 위하는 신전과 다른 신들을 위하는 신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 도시들 안에서.

이제 다시 문제를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황제 숭배 또는 황제 숭배와 심지어 로마의 신들에 대한 숭배를 유지하고 강요하는 체계, 이 전체 황제 숭배와 숭배 체계, 축제와 축하 행사, 신전과 동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도시의 정치적 삶뿐만 아니라 경제적 삶에도 통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의 1세기 도시에서

상업 활동이든 다른 일이든 특정 직업을 가졌다면, 그것은 종종 실제로 황제를 숭배하고 숭배하는 기회와 시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신들. 일부 도시에 존재하는 많은 무역 길드에는 수호신이 있는데, 당신이 그 길드 중 하나에 속하게 되거나, 그 도시 내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을 기리기 위해 또는 당신이 일을 통해 얻은 재정적 및 기타 축복에 책임이 있는 황제를 기리기 위해 충성을 표시하고 이러한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는 형태로.

그렇다면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평화를 책임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축복과 물질 등을 담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번영과 안녕을 책임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의 등을 담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글썄요, 특히 후원을 소중히 여기고 명예와 수치심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로마와 그 황제가 행한 일에 대해 궁극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극도의 배은망덕, 심지어 반란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명예를 나타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생활은 밀접하게 통합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같은 많은 국가에서 이것은 다소 낯선 개념이며, 로마 제국의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삶이 얼마나 통합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날짜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세 가지 옵션이 있었지만 가장 인기 있는 옵션은 요한계시록이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아마도 서기 95년이나 96년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던 1세기의 마지막 10년 중반쯤이었죠. 또 다른 인기 있는 연대는 네로가 황제였던 서기 6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략 95년이나 96년을 지지하고 주장합니다.

나는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좋은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하는 어떤 것도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달려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 배경, 전체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 그리고 1세기에 교회가 있었던 지방에서 만연했을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간단한 설명만 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딜레마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두 가지 가능한 방법, 아마도 다른 방법이 있었지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언급하는 일곱 도시의 교회 중 하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은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 로마 제국을 주와 신, 신으로 인정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수 있었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수 있었으며, 황제를 숭배하는 축제와 기타 축하 행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역 길드가 그들의 번영이 황제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기회를 제공했을 때, 로마 제국의 문화와 경제, 정치와 종교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저항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것은 단지 구세주이자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단순히 충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즉 단순히 그리스-로마 문화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것을 위반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독점적인 주권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황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항했고, 어느 정도 배척이나 심지어 박해를 받는 결과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박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시점에서는 아직 제국 전체에 걸친 기독교인 박해와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로마 군대가 마을로 들어가고 집집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나가서 거리로 끌고 나갔고, 결국에는 야생 동물들에게 잡아먹히기 위해 원형 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2세기 후반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박해는 산발적이고 지역적이었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은 황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수준에 더 가깝습니다.

황제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대부분의 당국과 지방 관리들은 이를 강요하여 타협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황제 자신이 시작한 제국 전역의 공식적으로 승인된 박해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존은 지금까지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존은 지금까지 죽은 사람 중 한 명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2장 13절에 보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요한은 더 많은 내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박해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학살당하고 참수당하고 순교당한다는 매우 강력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로마와 교회가 충돌하면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는 죽은 사람 중 안티파스라는 사람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 자신도 그의 간증과 복음 전파 때문에 밧모 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광범위한 박해는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에는 저항하고 그 결과를 겪는 것 외에도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타협과 안주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장과 3장에서 교회에 보낸 일곱 통의 편지, 즉 일곱 메시지를 읽을 때, 그들 중 단 두 명만이 로마 제국의 이웃과 관리들의 손에 어떤 종류의 박해와 배척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다섯 교회는 실제로 2장과 3장의 메시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교적 환경에 너무 타협하고 자신들의 상황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불리는 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 전혀 좋은 말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받는 유일한 교회는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두 교회인데, 둘 다 다소 가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충실한 증인입니다. 다른 다섯 교회는 주변 환경에 너무 안주하고, 우리가 방금 묘사한 로마 제국의 상황에 기꺼이 타협하려고 하여 어떤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일곱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교회. 아마도 이들 교회 중 일부는 성격상 더 안주적이고 타협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아마도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 배척을 피하기 위해, 심지어 안티파스처럼 육체적인 죽음조차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이사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지만 가이사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고의적으로 합리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입장을 취하던 다른 교회들이 겪고 있던 문제들.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너무 안주해 주변에 너무 안주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어느 정도 타협했는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로마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생활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 그리고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무엇보다도 위로의 메시지, 즉 위로와 위안과 격려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 두 교회와 그들과 같은 다른 교회들을 위해, 타협을 거부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문구인 신실한 증언과 간증을 유지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인내하십시오.

2장과 3장의 두 교회와 그와 유사한 교회들에게 계시록은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사람들, 로마 제국의 주변 환경에 너무 안주한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경고와 권고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독자들의 안일함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들이 어느 정도 타협했는지 이해하도록 권고하며, 그들이 어떤 결과를 겪더라도 회개하고 독점적인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순종으로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과 그것이 책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로마제국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그것은 로마 자체가 제시하는 것과 로마 제국의 성격과 성격, 그리고 로마 제국을 전반적으로 보는 방식에 대한 로마의 동상, 미디어, 선전에 대해 로마 제국에 대한 반대 견해 또는 반대 평가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대신 요한계시록은 로마제국의 본질에 대한 비평, 예언적 비평을 제시하고 폭로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묵시록의 제목이 공개, 폭로를 의미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은 로마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이 무엇인지 폭로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부패하고, 신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고, 폭력적인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며,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우고, 자기 백성에게 예배를 요구하며 폭력으로 그것을 유지합니다. 로마에 관한 모든 것은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것과 반대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발견되는 것과 반대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로마에 대한 비판이다. 로마는 모든 것이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그것이 주장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들이 로마를 그 진정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보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에서는 로마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비판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해야 할 우상숭배적이고, 신이 없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통치이자 제국으로서의 로마의 본질을 폭로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로마제국의 특성상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예배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내하고 신실한 증언을 계속하도록 하는 위로와 격려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타협하는 교회들에게는 회개하라는 부르심, 깨어나라는 부르심, 저항하라는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그들도 로마 제국과 같은 운명에 참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분입니다.

정의를 가져오는 분은 로마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닙니다. 그의 배경에 대한 반응으로서 계시록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제가 여전히 듣고 있는 계시록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이해가 거짓임을 부분적으로 폭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시록에 대한 교회의 반응에 관해 우리가 설명한 두 번째 범주에 거의 속합니다.

첫 번째는 집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시였습니다. 인간의 특징을 지닌 메뚜기 등과 같이 너무 이상하고 이상한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그 대신에 책을 실제로 다루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사람의 말은 문자 그대로 '나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자, 그 진술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들어있든, 계시록의 실제 내용을 다루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잘립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희생적이고 신실한 증언을 통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분의 아들을 도살된 양으로 보내심으로써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신실한 증언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거의 역설적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필요하다면 죽기까지라도 신실한 증거로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응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도록 요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과연 누가 당신의 숭배를 받기에 합당한가 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의 충성과 헌신과 예배를 받기에 진정으로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순종에 진정으로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황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인간 통치자인가? 다른 인간 기관이나 단체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단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책으로 보는 것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지만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분의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 도살된 어린양을 통해. 거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로마 제국과는 확실히 달리 정복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위해 오셔서 죽으시는 고통받는 어린 양을 통해 승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같은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충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예배를 하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전적인 숭배와 헌신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책이 왜 기록되었는지, 역사적 상황, 일곱 교회, 로마제국에서의 그들의 상황,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도전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질문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책을 다루고 있나요? 즉, 우리가 읽고 있는 문학은 어떤 종류이며, 그것이 어떻게 요구되며, 실제로 그것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요구됩니까? 즉, 우리는 요한이 쓰고 첫 번째 독자들에게 전달한 문학의 유형, 그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이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에 비추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해석학 수업이나 성경 공부 방법 수업에서 자주 배우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이며, 어떤 종류의 문헌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복음서를 읽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는 우리가 예언적 본문이나 서술적 본문 등을 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약의 시를 읽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때 이 사실은 종종 무시되거나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가 실제로 두 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따라야 할 좋은 모델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계시록이 설교될 때에도 무시하는 반응이 자주 만연합니다.

보통 2장과 3장 설교를 듣게 되고, 가끔 1장 설교를 듣게 되며, 때로는 4장과 5장까지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전체가 일련의 설교 주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내 생각에 동방 정교회 성구집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전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하는 본문은 다시 2장과 3장이나 찬송가 등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모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훨씬 더 유용한 리소스와 책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는 현대에는 요한계시록과 어떤 좋은 비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상당히 가까운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앉아서 묵시록을 읽은 것은 언제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앉아서 글을 쓴 게 언제였나요? 우리는 거의 매일 편지를 읽습니다. 이제는 일반적으로 이메일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식의 문학을 읽는 데 익숙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시를 읽거나 쓰면서 시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요한계시록과 밀접한 비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에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비교 대상이 실제로 없을 때 그것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ED Hirsch라는 유명한 문학비평학자는 의미는 장르에 국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문학 작품의 의미가 문학 장르, 즉 어떤 종류의 문학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장르입니다. 우리는 종종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르 자체, 문학의 유형도 의미를 갖습니다. 또는 의미를 제안하고, 텍스트 자체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헌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도 계시록의 특정 구절을 해석하는 방법, 심지어 계시록을 다루는 전반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할 때 올바른 시작을 하고 실수와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계시록에는 여전히 그 자체의 논리가 있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고유한 구조와 구성 방식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거나 요한이 기록한 문학적 장르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고 읽는 데 있어서 올바른 출발을 하고 올바른 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 분명히 우리는 매일 장르를 식별합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싶어하는 가장 쉬운 예는 조간 신문을 집어들 때입니다.

신문을 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하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장르를 식별하기 시작합니다. 첫 페이지에서 만화 섹션으로 넘어갈 때 문학 장르에서 심각한

전환과 도약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만화를 같은 방식으로 읽거나, 같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같은 정보를 찾거나, 첫 페이지 헤드라인을 다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마세요.

예를 들어 신문의 몇 페이지 뒤에 나오는 광고를 다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만화를 다루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이 신문 내의 또 다른 유형의 문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읽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직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제 나는 만화로 옮겼고 만화는 이러한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화를 해석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의 목록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대 문학 장르, 특히 우리와 크게 다른 장르나 현대 문학 장르와 전혀 유사하지 않은 장르를 자주 다룰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어떻게 씨름합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종류의 문학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문학 장르에 속해야 합니까? 아마도 더 정확하게, 적어도 시작하려면, 요한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독자들이 계시록을 문학 장르의 관점에서 무엇으로 식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요한은 그들이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이사를 숭배하는 것이 관찮은지에 대한 위기에 직면한 로마 제국의 7개 역사적 교회에 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존은 그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독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떤 문학 장르로 식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내가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 말한 것을 읽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과 다른 해석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적어도 세 가지 문학 유형인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세기에 잘 알려졌을 세 가지 문학 장르입니다. 그리고 그 장르는 단순히 종말, 예언, 편지 또는 서신입니다. 마지막 것이 일반적으로 간과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묵시록, 예언, 서신입니다. 계시록은 적어도 이 세 가지가 혼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 자신도 자신이 세 가지 개별 유형을 혼합하고 있다고 반드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로서 우리는 이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유형의 문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읽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지만 요점은 이 세 가지 문학적 유형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종말은 실제로 현대의 제목에 더 가깝습니다. John이나 다른 누구도 특정 유형의 책을 지칭하기 위해 묵시록이라는 레이블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유사한 기능과 특성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저작물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용한 레이블입니다.

1세기의 다른 유형의 문학 및 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유형의 저작물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문학적 유형, 즉 묵시록, 예언, 서신, 편지는 모두 1세기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종류의 문학 작품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읽기 위해 활성화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 없이 앉아서 신문을 읽을 때 첫 페이지 헤드라인에서 만화, 분류 광고로 건너뛰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 독자들도 자신들이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식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직관적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도 이러한 유형의 작품에 익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종말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강의의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오늘날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비기독교적인 용어에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크게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포칼립스는 영화에 자주 적용되는 제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종말, 전체 우주의 격변적인 종말, 종말론적인 규모의 세계적인 재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말의 대재앙이나 이 세상이나 이 우주 전체를 종말이나 그와 유사한 것으로 가져오는 사건을 생각합니다. 나는 1세기에 독자들이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세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묵시록(apocalypse)이라는 단어는 1세기 독자들이 파악하고 이해했을 문학 유형을 가리킵니다.

반드시 세상의 종말이나 격변적인 역사의 종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1세기 독자들이 이해했을 문학적 유형을 가리킨다. 그리고 다음 세션에서는 잠시 시간을 내어 묻고 싶습니다. 종말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종말이라는 라벨은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적인 라벨입니다.

요한과 1세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식할 수 있는 독특한 문학 유형을 참조하는 데 사용하는 유용한 레이블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학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이해했을까?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이런 종류의 문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계시록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e Mathewson입니다. 세션 1, 소개 및 배경입니다.